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6.30원 급락한 1,384.90원에 마감

8일 환율은 전일대비 16.30원 급락한 1,384.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20원 하락한 1,394.00원에 개장했다. 미국 중간선거 경계감 속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기대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저가매수가 1,390원대에서 유입되었지만 증시 호조와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낙폭을 확대했다. 1,390원 선을 하향 시도한 이후에는 위안화 약세 등 영향에도 변동성이 잦아들며 1,384.9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10.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3.09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94.00	1394.60	1383.70	1384.90	1387.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56.22	956.22	942.14	949.4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03.62	1404.67	1380.78	1394.8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1	-5.4	-11.79	-25.44
결제환율(수입)	-0.1	-3.95	-10.67	-23.4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험투자 심리 강화에...1,370원 초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4.90) 대비 9.35원 하락한 1,375.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위험투자 심리 강화 및 달러화 약세 분위기 연장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중간선거가 위험선호 및 약달러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원화는 외국인 자금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기록 중에 있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증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역내 수급 상 일부 수출업체 추격 매도 물량 유입이 예상되는 점 또한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9.50 ~ 1380.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780.6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35원 ↓
	■ 美 다우지수 : 33160.83, +333.83p(+1.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6.8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94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